

한국IDC, '아태지역 미래 도시 IoT 레디니스' 발표...서울은 IoT 성숙도 2위

2019년 9월 23일, 한국 -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 코리아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이하 한국IDC, 대표 정민영, (<https://www.idc.com/kr>)는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의 '미래 도시 사물인터넷(IoT) 레디니스 (Readiness)' 보고서에서 경제 환경, 기술적 준비 및 성숙도에 따라 각 도시들의 IoT 준비 수준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광대역 보급률이 높고 규제가 잘 갖추어진 경제환경에서, 기술 및 스마트 시티에 대한 지출이 많은 도시일수록 IoT 준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일본제외) 내 IoT 준비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싱가포르이며, 서울과 홍콩이 뒤를 이었다. 정부 주도의 계획과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클라우드 및 Io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비즈니스 환경과 잘 결부되어 해당 도시들의 IoT 성숙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이 도시들에서는 인프라 관리 등 더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한 벤더들의 수익 창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한국IDC에서 스마트 시티 및 IoT 리서치를 리드하는 김경민 수석연구원은 "국내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IoT는 스마트 시티를 미래 도시로 진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정적이고 진보된 통신인프라는 아태지역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스마트 시티 내 IoT도입을 용이하게 하면서 IoT준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여기에 클라우드 환경의 저변 확대와 데이터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국내 IoT준비는 앞으로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그리고 심천이 스마트 시티와 IoT 인프라 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하며 IoT 준비 수준이 높은 Top 3 도시로 나타났다. 세 도시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IoT 인프라 확대와 신규·기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IoT 인프라 관리가 모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고서에는 뉴델리,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뭄바이 등 IoT 준비 수준이 낮은 도시가 다른 영역으로 IoT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 관리, 공공 안전 등과 같은 주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IoT를 배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IDC 아시아 태평양 공공 부문 리서치를 총괄하는 제럴드 왕(Gerald Wang)은 “도시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사들이 스마트 시티 IoT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고 있지만, 종종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일로(silo) 접근법을 취한다”라며, “이러한 사일로 관행은 구축된 분석 솔루션의 정확성을 저해하거나 왜

곡시킬 수 있으며, 리소스 중복으로 인한 인프라 및 엣지 장비에 대한 지출로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범 단계를 넘어 어떻게 IoT 이니셔티브를 확장할지에 대한 고민은 일반적이다. 도시들은 로열티가 없는 도시 기반 시설 운영, 공식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소비자 데이터 액세스와 같은 거래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IDC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끝>

About IDC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IT 및 통신, 컨슈머 테크놀로지 부문 세계 최고의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현재 전세계 110여개 국가에 11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기술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DC의 분석 정보와 인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은 시장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최신 이슈들을 업무에 신속하게 반영하며, 사실 기반의 의사 결정 및 마케팅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합니다. IDC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테크놀로지 부문의 미디어 및 리서치, 이벤트 그룹인 IDG의 자회사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idc.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witter: @IDC)

한국**IDC** (<http://www.idc.com/kr>)는 1997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해외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시장조사 모델을 채택, 여기에 GLOCAL(Global+Local)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 연구원 및 폭 넓은 시장 조사와 수년간 축적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전세계 110여개국에 걸친 IDC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리서치 서비스에서부터 커스텀 컨설팅, 이벤트를 포함한 마케팅 솔루션에 이르는 종합적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bout IDC

IDC is the premier global provider of market intelligence, advisory services, and events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ies. IDC helps IT professionals, business executives, and the investment community make fact-based decisions on technology purchases and business strategy. Over 775 IDC analysts in 50 countries provide global, regional, and local expertise on technology and industry opportunities and trends. For more than 40 years, IDC has provided strategic insights to help our clients achieve their key business objectives.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You can learn more about IDC by visiting <http://www.idc.com/>.

IDC is a subsidiary of IDG,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media, research, and events company.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found at www.idc.com.

All product and company names may b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holder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Yoona Jung (###)
yjung@idc.com
+825504321